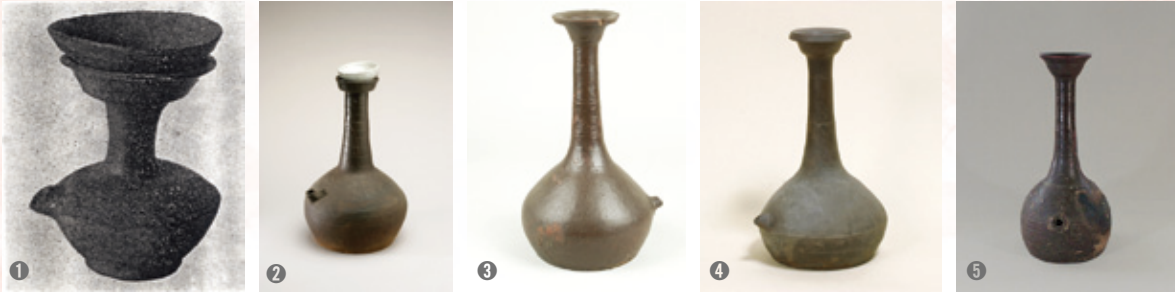


# 삼국시대 : 유병겸용등경(油瓶兼用燈檠)



기름을 담은 기름병과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를 겸해 쓴 유병겸용등경(油瓶兼用燈檠)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매우 오랜 등기(燈器)의 한 종류이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점차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면 유병겸용등경은 목 부분이 길어지고 주둥이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등잔대와 기름병의 2중 역할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점차 실생활에 맞게 적절히 변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초창기 삼국시대 유병겸용등경처럼 등경의 키가 낮으면 덩달아 등잔불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쓰려면 일정한 높이의 또 다른 공간에 등경을 두고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등경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차 등경의 목 부분을 적절히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때문에 유병겸용등경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 목 부분이 긴 조선 시대의 것이며, 그 형태를 보면 적갈색이나 회갈색의 도기(陶器)에 여러 줄로 죽절문(竹節紋)의 양각(陽刻) 띠를 두르고 위쪽 주둥이 부분은 밖으로 살짝 벌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등경의 주둥이는 등잔을 올려놓고 쓰기도 하고 등잔에 기름을 넣는 주구(注口)로 사용하기도 하며, 등경 아래쪽에는 등경(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작은 주구가 또 하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앞쪽 결합형 등잔대를 소개할 때 잠시 언급하였지만, 더러 식생활 도구로서 식초를 담아두는 초항(草缸)이나 촛병으로 잘못 이해한 사례도 많다.


그리고 유병겸용등경과 비슷한 형태로서 사진 ⑦, ⑧의 옹기재질의 등잔대가 있다. 이 등잔대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도 얼핏 보아 유병겸용등경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등잔대들은 대체로 석유등잔이

사진 ① 토제유병겸용등경[土製油瓶兼用燈檠]/삼국시대-신라/높이 20cm 안팎/한국전력주식회사 공보실 편, <한국의 고등기>, 1968, 209쪽.  
 사진 ② 도제유병겸용등경[陶製油瓶兼用燈檠]/조선시대/밑지름 17cm, 윗지름 8.4cm, 높이 35.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③ 도제유병겸용등경[陶製油瓶兼用燈檠]/조선시대/밑지름 26cm, 윗지름 9.6cm, 높이 36.8cm/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 ④ 도제유병겸용등경[陶製油瓶兼用燈檠]/조선시대/밑지름 15.5cm, 윗지름 9.3cm, 높이 33.8cm/ 관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 ⑤ 도제유병겸용등경[陶製油瓶兼用燈檠]/조선시대/밑지름 15.4cm, 윗지름 9.7cm, 높이 38.5cm/ 경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나오면서 만들어진 근대적인 형태이다. 이 등잔대는 유병겸용등경처럼 목이 길고 아래쪽 부분에는 유병이 아니라 앞뒤로 구멍을 내어 그곳에 성냥과 기타 화구(火具)와 같은 여러 가지 작은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재떨이로 쓰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이러한 유물들은 실생활 속에서 한 가지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겸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유병겸용등경과 견주어 살펴보아야 할 등기로서 정병형(淨瓶形) 등잔이 있다. 정병형(淨瓶)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는 불교 공양구의 하나로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정병형 등잔은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고려시대 자료(사진 9)와 조선시대 자료(사진 10) 2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다른 기관이나 박물관 등에 있는지는 더 이상 확인 할 수 없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점의 정병형 등잔은 등잔이 맞는지, 아니면 정병을 등잔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가지 유물 중 특히 조선시대 정병형 등잔은 등잔이 아니고 정병이라고 확인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정병과 닮아있다. 등잔에는 몸체에 꽃무늬가 있고 목부터 입 주위까지 물결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입은 둥근 형태가 아닌 5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딱 정병처럼 보여 정말 정병이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리하여 글쓴이가 해당 박물관 학예실과 유물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박물관 측에서는 본 박물관 자료취득 때 다른 자료와 함께 등잔으로 소개받아 지금까지 그 취지를 살려 또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단 등잔의 한 형태로 그렇게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두 자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말 등잔으로 썼다면 과연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6.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6 도제유병겸용등경[陶製油瓶兼用燈檠]/조선시대/밑지름 14.5cm, 윗지름 9cm, 높이 38cm/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사진 7 도제등경[陶製燈檠]/조선시대/밑지름 13.9cm, 윗지름 9.5cm, 높이 30.5cm/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8 도제등경[陶製燈檠]/조선후기/밑지름 11cm, 윗지름 7.9cm, 높이 35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9 도제정병형등잔[陶製淨瓶形燈盞]/고려시대/높이 25cm 안팎/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10 도제정병형등잔[陶製淨瓶形燈盞]/조선시대/높이 25cm 안팎/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